

# 시멘트로 둘러싸인 소나무 세 그루

제주시 화북 제2어린이공원  
유니버설 활성화 시범 추진  
보호시설 없이 평탄화 작업

주민 “나무 고사시킬 작정”  
도 “굳은후 주변 잘라낼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화북 제2 어린이공원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소나무가 있던 장소를 시멘트로 뒤덮는 포장공사를 실시해 인근 주민들의 반목을 사고 있다.

최근 화북 제2어린이공원에는 통행로 평탄화 작업을 위한 시멘트 타설이 완료됐다. 통행로를 따라 위로 올라가자 소나무 3그루가 아무런 보호시설도 없이 방치돼 있었다. 나무 밑 부분을 시멘트가 뿔뿔이 둘러싸고 있었다.

지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난해 8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주도에 유니버설 디자인 전담팀이 신설됐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12월 26일까지 총사업비 9억여원을 투입, 제주시



화북 제2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 통행로 평탄화 작업으로 일부 소나무 주변이 시멘트로 뒤덮여 있다.

김현석기자

탐동 해변공영장 일대와 화북 어린이공원 2곳 등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구역 중 하나인 화북 제2어린이공원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식재·시설물·포장 공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소나무를 위한 보

호시설도 없이 주변을 시멘트로 뒤덮는 평탄화 작업을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주민 김모(59)씨는 “살아 있는 소나무를 절식 시켜 고사시킬 작정을 했는지 보는 내가 맘이 아프다”며 “어떤 생각으로 보호시설도 없이 시멘트로 나무를 뒤덮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시멘트 평탄화 작업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빈 공간없이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가 그친 후 시멘트가 단단히 굳어서 나무 주변을 잘라내면 소나무 생육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제주경찰, 9월 한달간 운영

제주지방경찰청은 9월 한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9월 19일부터 불법무기류 소지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기 전 진행되는 마지막 자진신고 기간이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걸쳐 허가가 이뤄진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 신고 기간에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할 수도 있다. 송은범기자

## 제주 다시 ‘가을장마’... 최대 120mm 비

3일까지 오락가락 비날씨

9월로 접어든 제주에 ‘가을장마’가 이어지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북쪽에 위치한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있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 2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다”며 “비는 2일 오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3일 아침부터 다시 내리겠다”고 1일 예보했다.

3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80mm이며, 산지는 12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2일 새벽을 기해 제주도 산지와 남부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효했다.

특히 2일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에 시간당 10~20mm 이상의 강한 비

가 내려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은 2일 아침 최저기온 23℃ 내외, 낮 최고기온 27~28℃이며, 3일 아침 최저기온도 23~24℃ 낮 최고기온 29~30℃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4일까지 천문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을 것으로 전망돼 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피해에 대비해야겠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中휴이기 종료... 해경, 강력단속 예고

중국어선의 휴여기가 끝나는 시점에 발 맞춰 제주해경이 강력단속을 예고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으로부터 제주해역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휴어

기는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이뤄진다. 특히 최근 3년간 제주해경이 적발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143척 가운데 81%에 달하는 116척이 휴여기가 끝나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단속됐다.

제주해경은 이에 따라 휴여기 기간 동안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술 공

모전을 실시하고, 자체 경비함정 단속 역량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해경은 이어 중국어선이 집중 입어하는 10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는 특공대원과 수사전문 요원을 단속 경비함정에 승선시켜 대응력을 높이고, 남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 함정에 헬기를 탑재, 해·공 입체적 순찰을 전개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 뮤지컬배우 홍지민과 떠나는 음악여행

스타강사 JDC 교육특강 17탄  
22일 웰컴센터... 선착순 모집

뮤지컬 배우 홍지민(사진)이 제주 청소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멘토로 나선다.

한라일보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도내 학생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특특특는 교육특강’ 17탄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특강에서는 뮤지컬 배우 홍지민씨가 ‘홍지민과 함께 떠나는 꿈과 음악여행’을 주제로 강연한다.

서울예술대 연극과와 단국대 대학원 대중문화예술학을 전공한 홍씨는 맘미아, 캣츠, 드림걸즈, 넌센스, 브로드웨이 42번가 등 수많은 뮤지컬 공연에서 활약한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배우이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 TV쇼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15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과 제3회 골든티켓어워즈 뮤지컬 여자배우상, 제4회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올해의 스타상, 2010 SBS 연기대상 여자조연상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앞서 지난 6월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특특특는 교육특강’ 16탄에는 웹툰 ‘신과 함께’의 주호민 작가가 강사로 나서 ‘상상력은 어떻게 만화가 되는가?’를 주제로 제주 청소년들을 만났다.

이번 교육특강은 무료이며, 도내 학생과 학부모 등 2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9월 9일부터이며, 홈페이지(http://edu.ihalla.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750-2523·2540.

표성준기자 sijyo@ihalla.com

## “추석때 112신고 평소보다 17% 증가”

가정폭력 신고건수도 ↑  
제주경찰, 특별치안활동

평소보다 112신고가 증가하는 추석연휴 기간을 맞아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한다. 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는 추석연휴(9월 22일~26일)에 일평균 1003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2018년 일평균 112신고가 857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평소보다 17%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 신고의 경우에는 10.7건에서 17.4건으로 62.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올해도 추석연휴 치안수요 집중될 것에 대비해 2일부터 15일까지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을 2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종합치안대책 1단계 기간(2일~8일)에는 금융기관 및 심야·새벽시간대 편의점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

을 실시기로 했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학대 우려가정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치안대책 2단계 기간(9일~15일)에는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 범죄취약지에 대한 순찰과 거점근무를 강화한다. 주요사건 발생시에는 관할 기능을 불문한 ‘112총력대응’을 전개한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 제주항만의 경쟁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

우리나라 연안물류의 중심지 제주항만은 신항만 건설로 해양산업 육성과 항만물류의 효율성을 기대합니다.

“제주 물류의 중심지 제주항, 서귀포항 활성화와 항만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항만물류협회 회장 고영철 사무국장 송태종 외 회원사 일동**

|                       |                       |                     |
|-----------------------|-----------------------|---------------------|
| <b>제주항</b>            | 대성해운(주) 대표이사 강공필      | 동광해운(주) 대표이사 김경호    |
| CJ대한통운(주)제주지사 지사장 김관진 | (주)한진 제주지점 대표이사 문종택   | (주)신광 대표이사 정갑선      |
| (주)제주료해운물류 대표이사 이상석   | (주)대양운수 대표이사 고성원      | 오성로지스틱스(주) 대표이사 오용택 |
| (주)제이비엘 대표이사 이순섭      | 금강해운(주) 대표이사 장기조      | 대성종합물류(주) 대표이사 강영근  |
| (주)한동 대표이사 고행진        | 거성물류(주) 대표이사 정상현      |                     |
| (주)우리자원해운 대표이사 고영철    |                       |                     |
| 대성종합물류(주) 대표이사 강영근    |                       |                     |
| <b>서귀포항</b>           | 상진해운(주) 대표이사 김상완      | 오성로지스틱스(주) 대표이사 오용택 |
| 삼성해운(주) 대표이사 김만호      | CJ대한통운(주)제주지사 지사장 김관진 | 대성종합물류(주) 대표이사 강영근  |
| (주)안정해운 대표이사 조인화      | 금강해운(주) 대표이사 장기조      | (주)보하해운 대표이사 현철호    |
| (주)상진 대표이사 김태식        | (주)우진산업 대표이사 정종연      |                     |
| (주)한동 대표이사 고행진        |                       |                     |
| (주)대양운수 대표이사 고성원      |                       |                     |
| (주)한진 제주지점 지점장 문종택    |                       |                     |

제주항만물류협회 제주시 임항로 111 / T. (064) 757-2925, 752-1900